

정치인이 36%·절반 이상 대졸...여성후보 17% 177명

6·4 지방선거 후보로 등록한 광주·전남 지역 출마자 999명의 직업 중에는 지방의원과 정치인이 가장 많았다. 절반 이상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갖췄으며 여성후보는 17%에 그쳤다. 최고령 후보는 80세, 최연소 후보는 25세였다.

◇직업란에 '정치인' 적은 후보 다수 = 6·4 지방선거 광주·전남지역 후보자의 36%는 정치인이거나 지방의원들이었기 때문이다.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7명 중 5명의 직업이 정치인이며, 광주 5개 구청장 후보 16명 중 7명도 정치인이다. 약사·의사 1명, 교육자 1명, 공무원 4명, 기타 5명 등도 단체장에 도전했다. 광주 시의원·구의원 후보 191명 중 91명은

최고령 80세, 최연소 25세

전남 시군의원 직업

농축산업 103명 가장 많아

로 거의 절반에 달했고, 다른 후보의 직업은 상업, 운수업, 회사원, 교육자, 농·축산업, 언론인 등으로 다양했다.

광역기초의원비례대표 후보 25명 중 정치인은 9명이다. 전남도지사에게 출마한 후보 3명 중 정치인은 1명 교육자 1명, 기타 1명이며, 시·군 단체장 후보 80명 중 지방의원과 정치인은 각각 3명, 29명이다.

단체장에 도전하는 후보는 공무원 14명, 농·축산업 5명, 변호사·교육자 각각 2명, 상업·수산업·건설업 각 1명, 무직 8명, 기타 14명이다. 116명의 도의원 후보의 직업은 지방의원 16명·정치인 38명이 가장 많았으며, 시군의원 후보 473명의 직업은 농축산업이 103명, 지방의원은 98명, 정치인은 60명 등으로 집계됐다. 전남 광역의원비례대표 후보 14명 중 정치인은 1명, 기초의원비례대표 후보 66명 중 정치인은 15명이다.

◇999명 중 대졸자가 566명 = 대졸자의 비율이 56.7%를 기록했다.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7명의 학력은 대학 중 1명, 대졸 2명, 대학원 3명이며, 5개

자치구 단체장 후보 16명의 학력은 대학원 졸업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

광주시의원 후보 59명 가운데 47명이, 구의원 후보 132명 가운데 93명이 대학 졸업장을 갖고 있었다. 광주 광역의원비례대표와 기초의원 비례대표도 대졸 이상이 각각 6명과 13명으로 집계됐다. 전남도지사 후보 3명의 학력은 대졸 2명, 대학원 졸업 1명이며 시장·군수 후보자 80명도 대졸 이상이 67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도의원 후보 116명 가운데 대졸 이상은 85명, 시·군의원 후보 473명 중 대졸 이상은 204명이다. 전남 광역의원비례대표 후보 14명 중 대졸 이상이 10명, 기초비례대표 후보 66명 중 대졸 이상은 19명으로 나타났다.

다. 광주교육감 선거 후보 5명 중 1명이 대학원, 4명은 대학원 졸업이며, 전남교육감 후보 3명 가운데 1명은 대졸, 2명은 대학원 졸업이다.

◇999명 중 여성 후보자 177명 = 광주·전남지역 여성 후보는 모두 177명으로, 전체 후보 999명의 17.7%를 차지했다. 광주 여성 후보자는 70명으로, 이 지역 후보자 244명의 28.7%, 전남 여성 후보자는 107명으로, 후보자 755명의 14.2%의 비중을 보였다.

구청장 후보 16명 중 여성 후보는 2명, 시의원 후보 59명 중 여성은 13명이다. 광주 구의원 선거 후보 132명 중 32명

이, 비례대표 25명 중 23명이 여성이다. 전남지역 시·군 단체장 후보 80명 중 여성 후보는 1명, 도의원은 116명 중 6명, 시·군의원 후보는 473명 중 31명이 여성이었다. 전남 광역비례대표는 14명 중 10명이, 기초비례대표 후보는 66명 중 59명을 여성이 차지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광주·전남지역 후보 가운데 최고령자는 나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나창주 후보로 80세, 최연소는 단체장 후보는 무안군수에 출마한 최길권(28) 후보와 의원 후보 중에는 광주 시의원(동구) 선거에 출마한 통합진보당 권민영(25) 후보다.

최령일기자 cki@kwangju.co.kr

10명중 4명 전과...단체장 후보 22% 17명 미필

전과·병역

6·4 지방선거에 출마표를 던진 광주·전남 후보자 10명 중 4명가량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가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지만 폭행치사, 강간치상 등 이른바 중범죄를 저지른 후보도 적지 않았다. 광주시장과 전남 지사를 포함한 광주·전남 단체장 후보 가운데 군 미필자는 17명에 달했고 지난 5년간 1억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후보도 있었다.

18일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역 및 기초단체장, 시군구 의원 선거 등에 입후보한 후보는 광주 244명, 전남 755명 등 999명 가운데 전과 기록 후보자는 433명으로 43.4%였다. 10명 중 4명 이

상은 1건 이상의 전과를 갖고 있는 셈이다. 전과 1건이 221명, 5건 이하까지 포함하면 414명(95.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전과 10건이 넘는 후보도 5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최다 전과 후보는 완도군수에 출마한 이용섭 후보로, 16건에 달했다. 이 후보는 1979년 공무집행방해를 시작으로 도로교통법 등 7건, 업무상 횡령,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집행유예형과 벌금형 등을 받았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12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다.

광역·기초의원들의 낯뜨거운 전과기록도 상당했다.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전과 비율은 12.6%에 불과했으나, 이번 선거부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 모든 범죄와 관련된 전과

를 공개하도록 한 개정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면서 비율이 3배 이상 높아졌다.

또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를 포함한 광주·전남 단체장 후보 가운데 군 미필자는 17명에 달했다. 전체 후보자 80명 중 여성 후보자 3명을 제외한 77명 가운데 무려 22.0%에 달한 수치다.

지난 5년간 1억원 이상 체납자도 2명으로, 임인현 동구청장 새누리당 후보는 1억 3305만9000원, 나창주 나주시장 무소속 후보는 1억66만9000원을 체납했다.

광주 광역의원 후보 중에는 군 복무를 하지 않은 후보자는 8명으로, 여성을 제외한 후보자 46명 가운데 17.4%를, 전남 광역의원 후보 110명(여성 7명 제외) 중 군 미필자는 19명으로 17.3%를 차지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투표 꼭 하세요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나해석거리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4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알리고 투표 참여를 홍보하기 위한 플래시몹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택 97억 1위...기초단체장 15억 이상 19명

재산 내역

6·4 지방선거에 등록한 광주·전남 후보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등록한 후보는 김경택 전남도교육감 후보로 97억원을 신고했다. 이종호 전남지사 후보도 93억원을 등록해 서울시장 정몽준 후보를 제외하면 광역단체장 후보로는 사실상 1위다. 반면 수십억원대의 부채를 안고 있다고 신고한 후보도 있었다.

광주·전남지역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선 후보 중 최고 재력가는 이종호 전남도지사 후보로 93억8000만원을 등록했다. 이 후보는 재산 중 비상장 업체인 효창산업과 모디스코리아 2곳의 주식을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58억원 상당을 소유

했다. 무소속 강운태 광주시장 후보는 38억 3100만원을 신고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 전남도지사 후보 14억6000만원, 무소속 이병완 후보가 12억83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통합진보당 윤민호 광주시장 후보는 8300만원, 이성수 전남지사 후보는 5300만원을 신고해 각각 광주·전남 광역단체장 후보 중 재산이 가장 적었다.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임성훈 나주시장 후보가 69억원으로 기초단체장 후보 중에는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김철주 무안군수 후보와 김준성 영광군수 후보가 39억원씩을, 오형근 광주 동구청장 후보 34억원, 김충석 여수시장 후

보가 30억원을 등록했다. 광주·전남지역 기초단체장 중 15억원 이상을 신고한 후보는 광주 4명, 전남 15명이다. 가장 재산신고를 적게 한 후보는 나창주 나주시장 후보로 81억원의 빚이 있다고 적었다. 광역·기초의원중에는 보성 도의원 후보로 나선 임영규 후보가 70억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다.

교육감 후보 중에선 전남도교육감에 입후보한 김경택 동아인재대총장이 가장 많은 97억5700만원을 신고했다. 반면 김동철 전남도교육감 후보는 -333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최령일기자 cki@kwangju.co.kr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첫 부녀 지방의원·지방의회 7선 의원 탄생 주목

이색 후보

광역의원을 지낸 아버지의 지역구에 기초의원 후보로 출마한 딸, 단체 경선에 떨어진 형을 대신해 출마한 동생, 지난 1991년부터 7번 지방선거에 나선 의원 등, 이번 6·4 지방선거에는 이색후보들도 많았다.

먼저 광역의원을 지낸 아버지의 지역구에서 딸이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표를 던져 광주에서 첫 '부녀 지방의원'이 탄생할지 주목된다. 1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승민(여·36)씨가 광주 동구의회의원 선거구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등록했다. 조 후보는 1·2대 광주시의원을 지낸 조수용씨의 딸이다. 조 후보가 당선되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부녀가 지방의원을 맡는 첫 사례가 된다.

전국적으로도 '부녀 지방의원'은 종종 있었으나 부녀 지방의원은 드물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양시장 후보 경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한 이정문(60) 전 광양시의회 의장 대신 동생이 무소속 후보로 시장선거에 출마했다. 이성문(58) 광양시장 후보는 18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책임을 묻기 위해 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고 밝혔다.

국민 여론조사 100%로 진행된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양시장 후보 경선 결과는 김재무 후보(49.61%)가 이정문(46.91%)·강춘석(3.48%) 후보를 누르고 최종 후보로 선

출된 바 있다.

지방의회 7선 의원의 탄생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다. 강필규(63) 영광군의원 후보는 지난 1991년부터 6번이나 당선된 뒤 이번 7선에 도전한다. 강 후보와 함께 이재갑 경북 안동시의원, 탁대학 문경시의원 등 전국에서 3명이 7선에 나서며, 이들은 모두 정당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전남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경택 후보는 동아인재대 총장이라는 직함 이외에 발명왕으로도 알려져 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입력 속도가 빠른 한글 방식을 개발, 지난 2007년 3년 만에 특허등록을 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남남도선거관리위원회

불법적인 선거 여론조사

불법선거운동 조직설립

공무원의 선거 관여

불법신고 **1390**

후보자 추천·사퇴 관련 금품수수

'불법' 이제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선거 관련 금품·음식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 자수하면 감경 또는 면제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
•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도 익명으로 처리하며,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포상금 지급

광명선거홍보대사
방송인 서경석

광명선거홍보대사
SES아나운서 박성명